

폭염속 총동범죄·잇단 자살

지인과 시비 끝 뒤쫓아가 흥기 살해 술집폭력 20대·실연 군인 목숨 끊기도

연일 30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면서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해 사소한 일에도 흥기나 주먹을 휘두르는 '총동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지인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본보 7월 26일 6면) 송모(38·무직)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5일 새벽 2시55분 서구 염주동의 한 원룸 앞길에서 흥기로 양모(38)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범행 10분 전 서구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양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와 "너, 뭘 하는 자식이나?"라고 시비를 건데 격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양씨의 집 앞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8시20분께에는 동구 학동 P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장모(46)씨가 길을 걷던 오모(33)씨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동부경찰에 입건됐다.

자살 사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20분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를 뛰쳐나간 B(23)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과 다툰 뒤 이틀 본 손님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가족에 인계되던 중 사라졌다.

지난 25일 밤 8시10분께 서구 치평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해군 모 부대 소속 허모(31·광원도 동해시) 중사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모텔 종업원 이모(2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허 중사가 최근 결별한 여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집 안방에 벽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에는 남구 진월동에 사는 A(58)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빛 문제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원한이나 금전적 목적도 없는 '우발적 범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등의 사건·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며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심리상태가 되기 쉬운 만큼 급격히 술을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법 주·정차 '꼼짝마' '불법 주·정차외의 전정' 선포 첫날인 2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인단속 카메라가 장착된 승용차(오른쪽 앞)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완준 화순군수직 유지

광주지법,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52)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다"며 군수직 유지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6일 관사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단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군수가 식사 제공한 것 외에, 번영회장에 대한 격려금 전달이나 번영회장 취임식 기념품 제공, 쇄고기 기부 등 3건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께 민주당 관계자 등 23명을 관사에 초청해 식사 등 38

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또 지난 2008년 5월 화순 지역 번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주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와 쇄고기 등을 제공하는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 군수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6·2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를 대신 납부하고, '인사 청탁'을 발미로 1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083) 김장두



오현섭 도피 도운 50대 고형서 검거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잠적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도피를 도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고형서에서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종교인 김모(59)씨를 범인연락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 전 시장이 잠적한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가량 화순지역 산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오 전 시장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9일께 오 전 시장이 강원도 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경찰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오 전 시장의 도피 경로 및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57)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여수시 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여수시장 간부 김모(여·59)씨 비리사건에 연루의혹을 받아 36일째 행방을 감춘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마권 배당금 독식 했다"

주먹 휘두른 4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26일 마권 배당금을 나누지 않고 혼자 가졌다는 이유로 선배를 밀어 넘어뜨려 중태에 빠지게 만든 박모(43)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2)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뒤 밀어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의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A씨가 마권 배당금 10만원을 나눠쓰지 않고 혼자 쓰겠다고 말한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 보자" 접속 폭주

인터넷 공개 첫날 5시간 동안 12만명 접속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홈페이지(사진)가 26일 개설해 이용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서버용량이 턱없이 작게 설정돼 서버가 다운되는가 하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공개해 이용자에게 혼돈을 주는 등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 10명의 신상정보를 26일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세 이상 성인인면 홈페이지에서 성인·본인 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

시 '알림e'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5시간 동안 12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날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데만 10분 이상이 걸리는 등 이용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당초 예상했던 동시 접속자수인 6000명보다 훨씬 많은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국의 경찰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신상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버용량 증설 등 보완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신상공개 서비스 항목에 대한 수검·보안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홈페이지의 '시·도 통계지도' 코너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각각 따로 공개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0대 여성 성폭행후 살해 범행 은폐 방화 가능성

26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하다 이 집에 사는 이모(24·여)씨가 방 안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의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하의가 벗겨진 상태인 점 등으로 미뤄 서로 알고 지냈거나 치정관계인 범인이 성폭행 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이날 새벽 4시께 단둘이 사는 어머니 박모(56·청소원)씨가 일 하러 나간 뒤 범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에서 유류품과 모발을 수거해 분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연협뉴스

기발한 114 절도범

문패보고 집전화번호 알아

빈집 확인후 금품 훔쳐

주택가 문패에 적힌 이름으로 114에서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전화를 걸어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절도 전과 5범인 황모(35·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가 골목길을 걷던 중 집집마다 달린 문패를 보고 발걸음을 멈춰섰다. 기발한 범행 수법(?)이 떠올랐던 것이다.

황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패에 적힌 이모(27)씨의 주소와 이름을 114 교환원에 불러

줬다.

번호를 알아낸 뒤 이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빈 집임을 확인한 황씨는 제 집인양 잠금장치가 풀린 문을 열고 들어가 고급 양주·컴퓨터 등 5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황씨가 이같은 노하우로 지난 9개월간 도둑 주택가를 활보하며 텃 집은 50여 곳, 피해액만도 3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피리가 길면 잡히는 법. 황씨는 돈이 떨어지자 컴퓨터·노트북 등 고가의 장물을 한꺼번에 중고매상에 내다 팔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光山경찰은 26일 황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인주 빨리 만들라" 종업원 주먹질

○손님들이 주문한 안주를 빨리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싸운 술집 20대 종업원과 같이 근무하는 50대 주방 종업원이 나란히 경찰서행.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모 소주방 주방 종업원 오모(여·52)씨는 같은 술집에서 일하는 이모(27)씨가 "주문한 안주가 제때 나오지 않아 손님들이 다 나간다"고 불평하자 쟁반으로 이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씨는 오씨의 어깨를 밀치며 몸싸움을 싸웠다는 것.

○경찰에서 오씨는 "주방이 바빠서 안주가 제때 나오지 못한 것인데 이씨가 버릇없이 이야기해서 화를 참기 어려웠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금수장관광호텔' (Geumsojang Tourist Hotel)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hotel room and text: '내집같은 편안함!' (Home-like comfort!),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In Gwangju, there is Geumsojang Tourist Hotel.), and '4성급 호텔' (4-star hotel).